

PRAYER LETTER

សំបុត្រអធិស្ឋានពីប្រទេសកម្ពុជា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기도편지 2020-1호 (1월)

2019년 12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

쫄립쭈어.

안녕하세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갈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즘 저희에게 ‘사랑’에 관해 말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기 원하시며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말씀앞에서 저희는 작아집니다. 이곳은 그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선교지이며,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만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만 치고 방해하며, 배려없는 행동을 하고도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리는 아이들을 볼 때 소망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기 보다는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화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숨겨진 믿음 없음과 교만함을 더욱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희는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며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캄보디아의 마을 구석 구석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선교의 순수한 동기를 끊임없이 확인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었던 성경 속의 수 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오직 그 은혜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며 동역자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역 가운데 저희 자신은 날로 날로 희미해지고, 오직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저희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으로 쌓아가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퐁츠낭 언동르싸이교회와 캄퐁툼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선물을 주는 날로만 알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에는 선물을 받으러 왔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듣고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캄보디아어이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뻐합니다.



캄퐁츠낭 언동르싸이 해문교회

기도의 응답, 감사제목

1. 캄보디아어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전보다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고 있고, 성경단어들이 더 익숙해 지고 주요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가운이가 비록 캄보디아어를 하지는 못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아도 유치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캄퐁툼 사랑의 교회 (피어른 사역자)